

책 읽고 손 편지 쓰세요

전남우정청, 오늘부터 3주간 독서편지쓰기

전남지방우정청(청장 문성계)이 개최하는 '2014 Soul Korea 5000만 편지쓰기, '독서편지쓰기' 행사가 20일부터 3주간 개최된다.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편지쓰기 행사는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실시한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가 전국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손 편지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에게 쓴 뒤 5000만 편지쓰기 행사에 동참하고 싶은 이들은 봉투에 '하트마크(♥)'를 표시해 발송하면 된다. 편지쓰기에 동참한 개인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그림엽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많은 편지를 쓴 기관(단체)에는 광주시장상, 전남도지사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한다.

같은 기간 열리는 '초등학교 독서편지쓰기' 대회는 초등학교의 올바른 독서습관 함양과 정서 순화와 인성 계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자유주제로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가족, 친척, 친구에게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독서편지는 심사를 거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107명을 선발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많은 학생이 옹호한 학교와 우수지도 교사에게도 시상한다.

문성계 청장은 "학생들은 편지쓰기 행사에 동참하며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얻고 가족, 친구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가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고려인마을, 시립요양병원 등과 협약



사단법인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아)과 광주시립정신병원·광주시립제1요양병원(병원장 박인수)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마을을 고려인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고려인 마을 제공>

광주시의회, 수피아여고 농구팀 격려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은 지난 17일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수피아여고 농구팀을 방문해 선전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宗친회

-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회(회장 이철환) 월례회의=21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회(회장 이보희) 월례회의=22일(수)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 ▲해남 윤씨 광주 종친회(회장 윤재화) 정기 총회=25일(토) 오전 10시 광주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1층 062-224-3639.

알림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인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

- 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대한불교조계종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열린마을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간담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방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 보호. 062-959-234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

- 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12~22세 남자. 062-953-6101.
-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속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사랑애틀봉사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951-9461.
-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중·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지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 ▲충만재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부음

- ▲전연규씨 별세 흥현·미란(나주중 교사)·영란(강진 읍천초 교사)·화란씨 부친 상 기우현(광주 송원고 교사)·박간재(전남일보 경제부장)·이병희(곡성경찰서)씨 장인상=발인 21일(화) 광주 삼촌동한국병원 장례식장 1호실 010-2639-7126.

“인류학적 다큐 ‘민족지 영화’ 대중과 친숙해 지길”

‘렌즈 속의 인류’ 펴낸 이기중 전남대 교수

국내 첫 영상인류학자로서 10년간 연구 결과물 수록

“글쎄요”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이 심상치 않았다. 평소 저서와 언론 인터뷰에서 달변가로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예상치 못한 반응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전남대 인류학과 이기중(54) 교수가 인터뷰 들머리부터 곤혹스러워한 질문은 ‘자기소개’였다. 한마디로 본인의 소개하기 어려워 명함을 만들지 않았다는 인터뷰이의 자기소개는 길었지만 흥미로웠다.

“주전공은 영상인류학입니다. 여기에 맥주와 여행, 음식, 기타, 일본어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부전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짧게 지른 머리카락을 힘껏 세우고, 동근 볼테안경 너머 유쾌한 눈빛을 가진 그의 연구실에는 기다란 자기소개만첩이나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볼 수 있었다. 인류학 관련 자료는 물론 여행서적과 영화에 대한 것까지 따로 설명을 들지 않았다면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 책이 인상적이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스물한 번째 책 ‘렌즈 속의 인류’(민족지영화와 그 거장들)를 꺼내든 이 교수. 그는 이번 책을 펴내며 이전 저작과는 조금 다른 감회에 젖었다고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미국 템플대학에서 영화와 영상인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1999년 사진기를 통해서 본 결혼사진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카메라로 본 결혼’(Wedding Through Camera Eyes)으로 미국 영상인류학회에서 수상했고, 국내 첫 영상인류학자로 활동하면서 연구한 내용을 지난 10년간 준비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동안 맥주,

여행 등 여러 분야 책을 펴냈지만 사실 그건 제 부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인류학이 아직 낯선 분야지만 ‘민족지영화’에 대한 이번 책으로 대중에게 한층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단어를 접한 기자는 본능적으로 ‘민족지영화’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 교수는 질문을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지만 대답은 녹록지 않아 보였다. 후시나 하는 마음에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지만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에스노그라피 필름’(ethnography film)이라는 단어는 더욱 낯설었다. 국내 1호 영상인류학자는 민족지영화를 이렇게 정의했다.

“인류학은 인간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류학자는 분석한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류학자가 보고 느낀 것을 영상으로 만든 장르가 바로 민족지영화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04년 민족지영화를 분석한 책을 계획하고 10년간 거장 감독 5명 작품과 생애를 연구해왔다. 장 루시(Jean Rouch), 존 마셜(John Marshall), 로버트 가드너(Robert Gardner), 티머시 에시(Timothy Asch), 데이비드 맥두갈(David MacDougall)까지 아직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민족지영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민족지영화란 무엇인지 제시하고, 인류학이나 장르에 관심 있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펴냈다.



국내 1호 영상인류학자로 불리는 전남대 이기중 교수. 맥주 전문가 ‘비어헌터’로 더 유명한 이 교수는 주전공인 영상인류학서적을 지난 10년간 준비해 최근 출판했다.

스물한 번째 책을 설명하는 이 교수 옆에는 스물두 번째 책 원고 초안이 있었다. 이번에는 부전공인 맥주에 관한 이야기였다.

“2009년 맥주에 관한 첫 책 ‘유럽맥주견문록’을 펴내고 이듬해 ‘맥주수집 한눈에 보는 세계 73가지 맥주’를 썼습니다. 두 책에서 맥주 대국 여덟 나라에 맥주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맥주 종류에 따른 비교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대기업 맥주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세계 맥주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는데 불과 4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오는 11월 출간될 책은 향후 국내에 나타난 새로운 맥주 문화를 설명할 것입니다.” 130여 나라를 여행하며 맛있는 맥주와 맥

주 문화에 대해 연구해 ‘비어헌터’라고 불리는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펍’이었다. 이미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고 서울에서는 한창 나타나고 있는 펍.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맥주와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는 세계 맥주전문점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의 설명. 서울 등 전국 100여 곳 펍을 직접 돌아다니며 맥주 맛과 안주, 분위기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엄선된 30곳 펍을 소개할 비어헌터의 새 책은 오는 11월 출간된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우리집 내림음식 발굴경연대회’ 김옥기씨 ‘산적’ 대상

광주문화재단 주최

‘머느리도 모른다’는 시어머니의 손맛이 공개됐다. 광주문화재단은 19일 “전통문화관에서 지난 18일 열린 ‘우리집 내림음식 발굴경연대회’에서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산적’을 만든 김옥기(48·광주 서구 풍암동)씨가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광주, 여수, 보성 등 전라도 지역 주부 12팀이 참가해 각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에 얽힌 사연을 소개했다.

최우수상은 ‘아버지의 밥상’을 주제로 주



포탕, 양무침 등을 선보인 차경흔씨가 받았고, 우수상은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명태머리갈뚝뚝무침과 꽃게무침’을 만든 박민숙씨가 수상했다.

또 장려상은 시어머니의 ‘추어 통찜’을 재현한 김숙·조소영씨, 무안 박씨 7대 중부까지 내려온 ‘돼지고기 산적꼬치’를 선보인 최종화·한수희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모든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함께 음식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DJ 측근’ 조풍언씨 별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치렀던 재미사업가 조풍언 씨가 지난 14일 새벽 로스앤젤레스(LA) 인근 팔로스버디스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조씨는 지난 2011년 한국에서 돌아온 뒤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줄곧 투병생활을 해왔다



고 지인들은 전했다. 목포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조씨는 경기도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73년 무역회사 기흥물산을 설립해 미국 군수업체 ITT사에 장비납품을 하면서 무게중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연합뉴스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故윤춘희 님(여/76세) 子/子婦: 고영만/박금자 女/婿: 고민자/인창수 *발 인: 10월 2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故최태민 님(남/48세) 子: 최영우 女: 최미영 未亡人: 이영화 *발 인: 10월 2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201호故양금년 님(여/83세) 子/子婦: 이남수/이복남, 이방수/범혜숙 女: 이은경 *발 인: 10월 20일 *장 지: 협정나산 *연락처: 227-4381	401호故오윤호 님(남/89세) 子/子婦: 오지훈/이미숙 女/婿: 오수남/김해식 孫子: 오정표, 오순표, 강병민, 강영승 *발 인: 10월 20일 *장 지: 도암용리 *연락처: 227-4383
402호故김용운 님(남/55세) 子: 김광희 女: 김미연 孫: 김용민, 김용광, 김옥순 未亡人: 박수민 *발 인: 10월 20일 *장 지: 내림동선영 *연락처: 227-4314	

孝 金호정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